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만나다

한콘진, 오는 6일까지 넥스트콘텐츠페어 지역 우수 콘텐츠 전시 등 프로그램 다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벅스코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행사 '2018 넥스트콘텐츠페어(Next Content Fair 2018)'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다.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다양한 소재 등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콘텐츠는 물론 가상현실(VR) 등 5G 시대를 선도할 특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22개국 85개사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시장 다변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콘텐츠 전시, 우수스토리 피칭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국 문화산업지원기관들이 중심이 된 지역공동관에는 VR, 애니메이션, 캐릭터, 온라인 게임과 융·복합 콘텐츠를

전시한다. ▲국내 최초 소셜캐릭터 '부산언니 패밀리', ▲뉴미디어 애니메이션부터 VR스포츠게임과 스포츠 라이선싱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블베어' ▲고양시 공공캐릭터인 고아가족을 활용한 키즈콘텐츠 '고아패밀리' ▲취업준비생과 처녀 귀신의 낭만 로맨스를 다룬 웹툰 '귀신이면 어때'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5일에는 지역의 우수 스토리 피칭과 비즈니스 미팅 지원을 위한 'Story to 방방곡곡'이 열린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추천작 '케이버스 프로젝트(김정기 작가)'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이무기(김흥래 작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목련 필 무렵(문진영 작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왕의 잔(박희 작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누에(김형미 작가)' 등 총 5개 작품이 참가하며, 웹



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관계자들 간 상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문체부, 한콘진, 지자체, 전국 지역 문화산업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콘텐츠 육성을 통한 산업 발전과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이외에도 ▲쉽게 알아보는 지식 재산 출원과 사례(4일) ▲당신이 알지 못했던 스토리텔링의 속이야기(5일) ▲콘텐츠 투자 전략 강연(6일) 등 콘텐츠 산업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콘퍼런스가 함께 진행된다.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유명 창작자(크리에이터) 공대생, 양광 등이 무대에서 현장 방송을 진행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 라이브(MCN Live)', 반달이(국립공원관리공단), 울산 큰애기(울산광역시 중구) 등 국내 지역공공캐릭터는 물론 일본 유명 유투카라(지역공공캐릭터) 쿠마몬(구마모토현), 바리상(에히메현)이 함께하는 '지역·공공 캐릭터 축제'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넥스트콘텐츠페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콘텐츠 마켓으로 성장했다"며 "지역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콘텐츠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향후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10기가 인터넷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SK브로드밴드, 18일까지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사장 이형희)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0기가 인터넷으로 구현 가능한 응용서비스에 대한 전국 아이디어를 오는 18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10기가 인터넷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생활, 교육, 재난, 안전, 의료, 건강,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구현 가능한 서비스다.

SK브로드밴드는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채택된 내용은 PT, 멘토링 및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작에 대해 통신사상(2명), 상금을 증정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100만 원으로 대상 1명(한국정보화진흥원상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한국정보화진흥원상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4명(SK브로드밴드 100만 원 2명, KT 100만 원 2명)을 수상한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과 팀(3인 이내)은 최대 3작품 이내 제안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 심사는 창의성, 구체성, 적합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서약서 등의 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위한 장비적합성 시험기관 7개사 지정

과기정통부, 기술지원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3.5GHz 대역의 5G 서비스 장비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7개사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했다.

지난 8월 3.5GHz 주파수 대역 5G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무선(이동국, 기지국, 중계장치) ▲전자파 적합성(EMC) ▲전자파흡수율(SAR) 분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7개 사업자

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선정된 7개사는 ㈜케이씨씨티엘, ㈜에이치시디, ㈜윌텍, ㈜디티엔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이씨알, 한국에스지(주)다.

이번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으로 3.5GHz 주파수 대역 단말기, 기지국 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술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3.5GHz 주파수 대역의 시험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지정하는 한편 28GHz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적합성평가 시험기관도 조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전파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KCA, 수상작 9점 선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최근 '전파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파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총 196점의 제안서가 접수,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9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기반 라벨링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한 Labeled팀이 수상했다.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해당 아이디어는 보안 기술이 적용된 최적의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이다.

공공와이파이 이용자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앱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홍보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고 그 밖에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최근 '전파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KCA 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대상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대회 통합 본선 심사 대상으로 추천, 컨설팅, 멘토링 등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고 그 밖에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KCA 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심사위원장인 숭실대학교 이원철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참신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됐다"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이 높은 제안작을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KCA 서석진 원장은 "전파정보와 공공분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에서 전파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KT, AI·블록체인 기반 VPP기술 선보여

2018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참가

KT가 AI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가상발전소(VPP) 기술을 선보인다.

KT는 오는 5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에너지 종합 전시회인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 KT 에너지사업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KT 전시관은 GIGA인프라와 ICT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KT기가 에너지(GiGA energy)' 서비스 소개를 통해 KT가 꿈꾸는 '에너지 기가토피아(Energy GiGAtopia)' 세상을 연출할 계획이다. 세부 전시는 ▲KT-MEG 플랫폼 기반의 미래 가상발전소(Intelligent

VPP) 모형을 중심으로 ▲GiGA energy manager ▲GiGAenergy DR ▲GiGA energy Gen ▲GiGA energy charge ▲GiGA energy trade 등이 소개된다.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 김영명 전무는 "이번 전시는 그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KT의 노력이자 성과인 기가 에너지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기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세상을 체험하도록 구성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지역 일자리창출의 디딤돌 유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기간 2018. 1월 ~ 12월

추진방법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

지원규모 관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8개사
-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 9개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리와 지원 : 10개사
-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 10개사

지원예산 271,000천원

문의 북구청 기업지원과(☎062-410-6577)

광주광역시북구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간 2018 1월 ~ 12월

지원대상

-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중 청년 신규 고용기업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신청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12개사
- 중소기업 특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사출력 지원 : 10개사

문의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26

광산구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경제 행복한 동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와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